

도서관의 혁명시대, 정체는 퇴보다

국회도서관장 허용범
yb22032@nnet.go.kr



저작자표시(BY)



5월 14일 연세대학교 초청으로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이 '데이터 융합과 도서관 혁명'에 대해 강연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더 이상 변화를 꿈꾸지 않는 그 자체이다. 두려움이든 귀찮음이든 게으름이든, 더 발전하기 위해 변화하려는 의지를 잃어버린 경우이다. 그것을 '정체'라고 표현한다면, 문제는 그러한 정체가 퇴보의 다른 말이란 사실이다. 그런 정체의 상태, 즉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는 것은 스스로 세상의 변화에 뒤처져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정체의 평범함' 짚으로 번역될 수 있는 Banality of stagnation이란 영어 표현이 똑같은 상황을 얘기한다. 현재 상태에 머무는 정체(stagnation)가 특별하지 않는 평범함(banality)이자 일상적인 것이 되는 상태이다. 흔히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이란 표현으로 널리 쓰이는 관용구의 변형이지만, 정체가 일상적인 것이 되면서 그것이 어떤 문제를 갖는지, 이해하고 해소하려는 노력마저 없어진 경우를 가리킨다. 혁신의 파나는 노력 없이, 지금껏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기업이 대표적 사례에 속한다. 그런 기업은 점점 퇴보하고 결국 도태된다.

도서관도 변화를 몸부림치지 않으면 '정체=퇴보'라는 공식의 굴레에서 예외일 수 없다. 국회도서관도 마찬가지여서, '국가도서관'이라는 권위를 믿고 타성과 매너리즘에 안주한다면, 시대변화를 뒤쫓아가는 것조차 힘겨운 공룡처럼 되고 말 것이다.

국회도서관의 경우, 작년 2월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중심도서관 비전 선포식'을 갖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주도하는 시대적 변화에 대해 과감한 선도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시대의 변화가 결코 남의 일이 될 수 없고 도서관도 비켜설 수 없다면, 국가도서관으로서 앞장서서 변화를 선

도하고 소위 '미래도서관의 표준'을 책임감 있게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책무와 사명의 선언이었다.

그 모토를 중심으로 지난 1년여 동안 줄기차게 달려온 결과 국회도서관은 많은 변화를 만들어 내었다. 무엇보다 원문DB 구축예산 320% 순증으로 상정되는,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획기적 확충을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 국회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의정지원서비스에서도 '아르고스'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데이터 융합분석 역량이 본궤도에 올랐다. 전국 모든 광역시도 교육청과의 협정체결 등으로 '한국학술정보협의회' 회원기관이 마침내 2000곳을 돌파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국회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 네트워크로서 '한국법률정보협의회'와 '한국의정정보협의회'가 새롭게 출범해 대한민국 대표 법률정보, 의회정보 협력의 플랫폼이 마련되었다.

국회도서관 직원들은 그동안 많은 토론과 연구 등을 통해 국가도서관으로서의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노력을 해 왔다. 그것이 국회도서관의 올해 3대 목표인 ▲데이터 기반의 획기적 확충 ▲데이터 융합분석 서비스의 획기적 발전 ▲도서관 네트워크의 획기적 확대로 구체화되었고, 실제 성과로 나타난 셈이다. 특히 '한국학술정보협의회'와 함께, 새로 출범한 '한국법률정보협의회' '한국의정정보협의회' 3대 전국 네트워크는 도서관이 가진 지식정보 활용을 확대하고 상호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내는데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요즘 나는 도서관 관련 행사 어딜 가나 "국회도서관이 많

이 변했다”거나 “국회도서관을 보고 많이 배운다”는 인사를 듣는다. 그럴 때마다 “열심히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학술정보공유 협정체결기관 2000곳을 돌파하는 6월 하순쯤에 맞춰 계획하고 있는 가칭 ‘국회도서관 지식정보 SOC 선언’은 작년 비전선포식에 이은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사회간접자본을 뜻하는 SOC를 변용해 만든 국회도서관의 ‘지식정보 SOC 선언’은 각각 ▲S=Share, 공유 ▲O=Open, 개방 ▲C=Connect, 협력을 뜻한다. 즉, 국회도서관은 모든 지식정보를 누구에게나 개방하고, 공유하며, 협력해 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도서관 지식정보의 개방과 공유, 협력’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는 4차산업혁명 시대 국가도서관으로서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설정하고 그 구체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을 전면적으로 개방기로 했다. 정숙한 분위기의 각종 열람실과 달리 1층 중앙홀의 경우 자유롭고 편안하게 드나들며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개방된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1층 출입문 안으로 샌드위치와 커피를 파는 카페가 들어오고, 출입시스템도 네이버 아이디로 스마트폰에 QR 코드를 내려받아 찍고 들어오면 되는 식으로 크게 간소화될 예정이다. 대학 학생증으로 우리 도서관 출입을 가능토록 하는 코드쉐어링도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학생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제일 먼저 이를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국회도서관은 1층 중앙홀이 바야흐로 ‘지식과 문화의 놀이터’로 바뀌어 갈 것이다. 국회도서관에 대해 가졌던 근엄하고 권위적인 이미지 대신, 사람들로 북적거리면서도 이용이 편리한, 친근하면서도 첨단적인 지식문화의 공간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향후 확대되어 갈 예정이다.

국회도서관이 추진해온 ‘공간의 개방’은 사실 ‘데이터의 개방’과 맞물려 있다.

우리는 국회도서관이 보유한 입법·정책·학술자료 전체(현재 약 175만책)를 디지털로 데이터화해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국가 데이터 기반자산으로 삼자고 호소해 왔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연간 200억원씩 총 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국회도서관은 이 입법·정책·학술자료 전체가 디지털DB화 되면 이를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

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대한민국 모든 도서관과 대학, 학술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 자산으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도서관으로서 국가예산을 들여 구축한 모든 도서관 자료와 공간을 적극적으로 개방(O=Open)하고 모두와 공유(S=Share)하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나아가 올해 들어 전국 17개 광역 시도 교육청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수많은 학교도서관과의 지식정보 공유협정 체결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국회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도서관 자산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력(C=Connect)의 일환이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등 총 243개 전체 지방자치단체와 일일이 협정을 맺고 의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도 같은 의미이다. 이 협정도 6월 중에는 100개 지방자치단체를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어, 한국의정정보협의회라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조직하게 된 것이다.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이 모든 것은 국회도서관과 다른 도서관들이 가진 서비스역량을 더 많은 국민이 더 편하게 이용토록 하자는 취지 그 이상이하 아무 의도도 아니다. 나는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지식정보의 최고 수집보존기관으로서 국회도서관이 마땅히 앞장서야 할 길이라고 믿고 있고, 국가도서관으로서 지식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노력이라고 여기고 있다.

한겨울 등산에서 눈길을 앞장서 열어가 는 행위를 러셀(russel)이라고 부른다. 어려움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도서관도 혁명적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면, 국가도서관인 국회도서관으로서서는 모두가 가야할 눈길을 앞장서 개척하고 미래도서관의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 대한민국 미래도서관의 롤모델이 되도록, 늘 변화를 추구하고 기왕이면 앞장서 가려하는 한, 국회도서관에게 정체란 말은 낯설고 불편한 단어일 뿐일 것이다.¹⁾

1) 이 글에서 ‘Banality of stagnation’은 <전자신문> 2019년 4월23일자 ‘박재민 교수의 편한 기술경영(162) 혁신 정체에서 모티브를 가져 왔음.